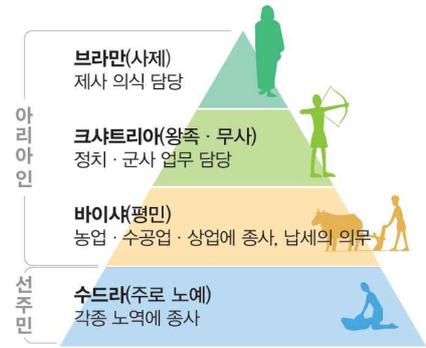


##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 [새로운 종교의 탄생]

#### 01. 배경

- 기원전 7세기경
  - : 아리아인이 세운 도시 국가들이 갠지스 강 유역에 등장
  - : 통일 국가를 향한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
-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의 성장**
  - :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제사 의식 반대
  - : 브라만 중심의 사회 질서 비판
- 우파니샤드 철학 등장
  - : 범아일여[우주의 본체(브라만) = 인간의 본체(아트만), 梵我一如]
  - : 해탈(解脫) 강조



〈카스트제의 신분 구조〉

#### 02. 불교와 자이나교의 출현(기원전 6세기 경)

-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 의식, 브라만 사제의 횡포와 타락, 카스트제의 계급 차별 비판
- 불교와 자이나교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타마 싯다르타[고타마(가장 신성한 소), 싯다르타(목적 성취), = 석가모니] 창시</li> <li>• 동물 희생에 반대하여 살생 금지 강조</li> <li>• 인간은 평등하며 누구나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해탈할 수 있음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심을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li> </ul> </li> <li>•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확산</li> </ul>
자이나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다마나[= 마하비라(위대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존칭)] 창시</li> <li>• 윤회 사상 바탕, 카스트(바르나) 제도의 극복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li> </ul> </li> <li>• <b>고행을 통한 해탈 주장, 금욕 강조</b></li> <li>• 땅속의 벌레를 해칠까 봐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에만 종사 → 채식 위주의 생활</li> </ul>



석가모니(샤키아무니)



마하비라상(엘로라 석굴)

##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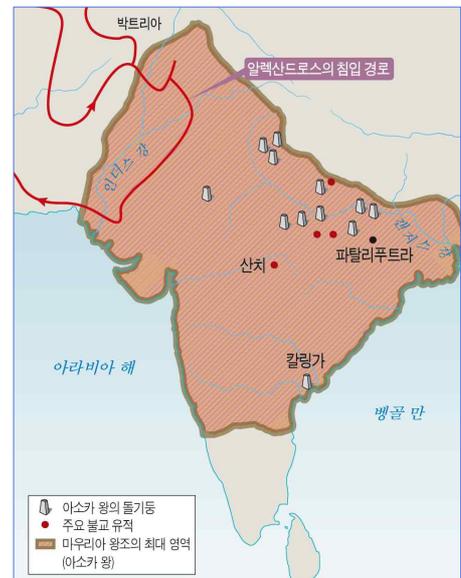
[★마우리아 왕조(기원전 317 ~ 기원전 180)]

### 01. 통일 전의 상황

- 많은 소국으로 분열
- 마가다(Magadha) 왕국
  - : 기원전 5세기 경 북인도 통일
  - : 불교, 자이나교 보호
- 알렉산드로스(BC. 356 ~ BC. 323)의 원정군이 인더스 강 유역 침공
  - : 통일 자극

### 02.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

-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 :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인도 북부를 통일하여 왕조 개창
  - : 셀레우코스 1세와 평화 협정 체결(기원전 306)
- 아소카왕(재위 기원전 270 ~ 기원전 230년경, 阿育王)
  - : 칼링가 정복
  - :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통일하여 전성기 구가
  - : 석주(石柱, 돌기둥) 건립
  - :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
  - : 불경 정리, 불교 포교, 산치 대탑과 같은 불탑 건립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BC. 300)〉



〈산치 대탑〉



〈아소카왕 석주의 머리 부분〉

#### ▣ 석주에 새겨진 아소카 왕의 칙령



- 누구나 자신의 종교만을 숭상하고 다른 종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에 무덤을 파는 것이며, 다른 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 경청하라! 다른 종교의 교의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라.
-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소승) 불교 발달
  - :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포교단 파견

##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안드라 왕조(기원전 1세기 ~ 기원후 3세기)]

### 01. 건립

- 드라비다 족이 데칸 고원에 건국

### 02. 발전

- 로마, 동남아시아 등지와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

### 03. 문화

- 불교와 브라만교 발전, 카스트 질서 회복  
: 교역 활동을 통해 남인도로 확산



[★쿠산 왕조(30 ~ 275)]

### 01. 건국

- 서북부 지역, 푸르샤푸라 중심
- 이란 계통의 쿠산 족이 세움

### 02. 발전

- 중계 무역으로 번영  
: 후한과 서아시아의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동서 교역로 장악  
: 로마와 바닷길을 통해 교역

〈쿠산 왕조의 영역과 동서 교역〉

### 03. 전성기

- 카니슈카왕(재위 128 ~ 151)  
: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 확보  
: 불교 지원과 포교에 노력  
↳ 불경 결집, 산스크리트어 경전 완성
- 대승 불교 발달  
: 중생(衆生)의 구제 강조  
: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음
- 간다라 양식  
: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  
: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  
: 불교 미술 발달  
: 인간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한 불상 제작  
: 대승 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한반도, 일본 등 동아시아로 전파



〈간다라 양식과 불상〉

##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 [굽타 왕조(320 ~ 550)와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

#### 01. 건국

- 찬드라굽타 1세(재위 320 ~ 335)
- 갠지스 강 유역의 파탈리푸트라

#### 02. 전성기

- 찬드라굽타 2세(재위 380 ~ 415)
- : 북인도 통일
- : 벵골 만에서 인더스 강 유역까지 영토 확장
- : 중앙과 지방의 행정 조직 정비 등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 학문과 예술의 적극 장려 → 독자적인 인도 문화 발전



<굽타 왕조의 영역>

#### 03.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



(시바 신상)

- 힌두교 성립
  - :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
  - : 창시자 無, 체계적인 교리 無
  - :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라마 등 다양한 신들을 숭배
  - : 누구나 신 앞에 나와 제물을 바치는 것이 허용 → 급속하게 대중화
  - : 왕들이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하며 후원
  - :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 강조
  - : 『마누 법전』 중시(일상생활에 영향)
- 불교는 쇠퇴하였으나 날란다 사원을 중심으로 교리 연구 지속
- 산스크리트 문학
  - : 브라만 계층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
  - : 『사쿤탈라』·『메가두타』(칼리다사의 희곡), 『마하바라타』·『라마야나』(인도 2대 서사시) 정리
- 굽타 양식
  - : 조각(간다라 양식의 그리스적 기법을 극복하고 인도 특유의 곡선미 강조), 그림(독특한 음영법 사용)
  - : 아잔타 석굴 사원(불교 사원), 엘로라 석굴 사원(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
  - ↳ 인도 종교 건축의 최고 걸작, 불상과 벽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에 영향

#### 04. 자연 과학의 발달

- 영(0)의 개념[브라마 굽타, 『우주의 창조(브라마스푸타 싯탄타)』], 10진법 사용 등 수학 발달
- : 아라비아 숫자 체계의 형성에 기여
- 천문학과 의학 발달,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 추산, 지구의 자전설과 지동설 제기

#### 05. 쇠퇴

-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에프탈의 침략, 왕위를 둘러싼 내분으로 쇠퇴하다 멸망



불교의 성립과 전파



불교의 구분

구분	소승 불교(→)	대승 불교(⇔)
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좌부 불교</li> <li>• 출가자 중심</li> <li>• 개인의 해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부 불교</li> <li>• 재가자 중심</li> <li>• 중생 구제</li> </ul>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우리아 왕조 : 아소카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산 왕조 : 카니슈카왕</li> </ul>
전파	• 동남아시아	• 중앙 · 동북아시아

무불상 시대 ⇨ 간다라 양식 ⇨ 굽타 양식

▶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를 불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부처의 발자국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륜(수레바퀴), 부처의 자비를 상징하는 연꽃 등을 사용하여 부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부처의 발자국>



<간다라 불상>



<사르나트 초전법륜상>



<아잔타 1번 석굴의 연화수 보살 벽화>

[ ] 양식	[ ]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이 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리 모양이 물결 모양이고, 눈언저리가 깊고 콧대가 오뎅한 서양인의 모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 주름의 선을 생략하고,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을 만들어 예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얼굴이나 옷맵시에서 인도 고유의 색채가 뚜렷이 나타남</li> </ul>



▣ 찬드라굽타 2세(㉓, 재위 380 ~ 415)

굽타 왕조의 전성기를 이룩한 왕으로서, 영토나 문화면에서 현재 인도의 모습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비크라마디티아(무예와 용맹의 태양)’ 라는 별칭이 있는데, 한역으로는 초일왕(超日王)이라고 한다. 중앙 인도의 데칸 고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 상대인 나가족의 쿠베라나가를 왕비로 맞아 나가족을 회유하고, 또 다른 경쟁 상대인 바카타카 왕조의 루드라세나 2세에게 딸을 출가시켜 동맹을 맺었다. 또한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강대한 샤카족(族) 왕국을 정복하였다. 중국과 로마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차지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쪽으로의 영토 확장을 통하여 서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왕의 치세 때는 산스크리트 문학의 황금시대였는데, 시인 칼리다사가 우자인에서 활약하였고, 동진(東晉)의 승려 법현(法顯)이 인도 여행을 한 것도 이때이다.** 또한 주요 도시에 대학을 세워 학문과 종교를 장려하고, 독자적인 인도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힌두교 - 업(카르마)과 카스트의 중시

창조주는 …… 각자의 업을 정하였도다. 브라만에게는 『베다』를 가르치며 제사 지내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릴 것을, 바이사에게는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를 것을 명령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드라에게는 앞선 세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명령하였다.

- 『마누 법전』

▣ 동남아시아에 끼친 인도의 영향

**태국의 '라마야나'** 벽화. 아유타야 왕조의 이름이 '라마야나'의 야요디아 왕국에서 유래되었을 정도로 태국(시암)은 인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자와섬의 프람바난 힌두 사원** 중부 자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마타람 힌두 왕국이 850년 경에 세운 사원으로, 240여 개의 신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있는 이 사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 시절에 축조된 이래 모든 종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봉헌되었다가 후에는 불교(상좌부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었다.

**자와섬에 있는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 8세기 중엽 중부 자와에서 번성한 자일렌드라 왕조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 불교  
→ 힌두교

※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 교류 (『처음 읽는 인도사』, 2012)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인도, 중국, 이슬람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뱃길을 연결하여, 많은 상품이 거래되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일찍이 인도의 영향 아래 불교와 힌두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5세기에 플라카 왕조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교역로를 따라 이슬람교가 이 일대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개념 Check**

- ①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 )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 ② ( ) 왕조의 카니슈카왕은 불교 지원과 포교를 위해 노력하였다.
- ③ 쿠샨 왕조 때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 ) 양식의 불상이 제작되었다.
- ④ ( )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되어 성립된 종교이다.
- ⑤ 굽타 왕조 시대에는 『샤쿤타라』 등 ( ) 문학이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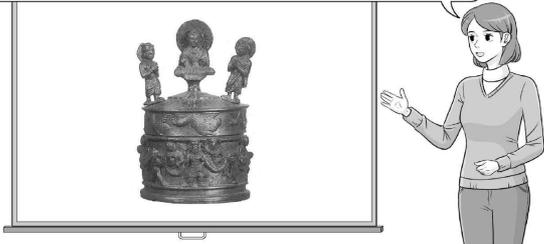
**유형 CHECK!!**

**01**

(기)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이 유물은 페사와르 인근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사리 용기로 덮개 부분에 불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의 카니슈카왕이 봉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불경을 모으고 사원을 건립하는 등 불교를 장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가)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는 불교가 발달하였습니다.



- ① 대승 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가 축조되었다.
- ② 궁전 형태의 묘당인 타지마할이 조성되었다.
- ③ 샤쿤타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성행하였다.
- ④ 고행을 통한 해탈을 주장하는 자이나교가 등장하였다.
- 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미술 양식이 발달하였다.

**02**

(기)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세계 여행 〉

이것은 (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산지 대탑이다. 이 탑은 반구형의 돔 형태로 되어 있으며, 탑 둘레에는 부처의 생애가 새겨진 4개의 문이 있다.

- ① 이슬람교를 수용하였다.
- ② 쿠티브 미나르를 조성하였다.
- ③ 데브시르메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④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 ⑤ 아소카왕 시기에 전성기를 누렸다.

03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알렉산드로스의 사망 이후 그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을 자처하며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하였다. 그는 펀자브 지방을 거점으로 영토 팽창을 시도하였으나, 인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가)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결국 셀레우코스 1세는 (가)와(과) 평화 협정을 맺어 펀자브 지방 및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등을 양도하고, 친선 관계 유지를 위해 사절을 파탈리푸트라에 파견하였다.

- ① 시크교가 출현하였다.
- ② 샤쿤탈라가 저술되었다.
- ③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였다.
- ④ 쿠티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 ⑤ 간다라 양식의 불상이 제작되었다.

05

(가)에 들어갈 문화유신으로 적절한 것은?  
[2020-7월 익력평가]

○○○○○ 보물전

(가)

일시: 2020. 7. △. ~ 9. △.  
장소: □□박물관

12세기 크메르족이 힌두교 사원으로 건립하였으나 이후 불교 사원으로 바뀐 ○○○○○. 이곳에서 발견된 캄보디아의 보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 주요 전시품 >

제1관 : 힌두교 유물관  
○ 팔이 넷 달린 비슈누 신상

제2관 : 불교 유물관  
○ 뱀 위에 앉아 있는 불상

- ① 
- ② 
- ③ 
- ④ 
- ⑤ 

04

다음 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자와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어요. 수많은 작은 탑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 ① 시크교의 사원이었다.
- ② 쿠티브 미나르가 세워져 있다.
- ③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축조되었다.
- ④ 크메르족이 세운 제국에 의해 건립되었다.
- ⑤ 찬드라굽타 2세의 명령에 따라 건설되었다.

##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굽타 왕조 멸망 이후의 인도]

### 01. 바르다나 왕조(606 ~ 647)

- 북인도 지역을 재통일하고 성립
- 봉건 제도 실시
- 학문과 불교 보호, 당(唐)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교류
- **현장(602 ~ 664), 날란다 사원에서 불경 연구(633 ~ 643)**



<출라 왕조의 힌두교 사원>

### 02. 출라 왕조(9세기 경 ~ 1279)

- 남인도 중심(데칸 고원 이남의 타밀 지역)
- 실론,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중국 등과 교역 → 동남아시아에 힌두 문화 전파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 01. 이슬람 세력의 침입

- 8세기경부터 인도 서북부에 등장

### 02. 가즈니 왕조(962 ~ 1186)

- 수도 가즈니(아프가니스탄 중동부)
- **북인도의 펀자브 지역 차지**, 힌두교 사원 공격(**마흐무드**)
- 페르시아, 튀르크, 이슬람 문화의 융합

### 03. 구르(고르) 왕조(1187 ~ 1215)

- 구르(아프가니스탄 동부 지방) 중심
  - 인도 내륙으로 세력 확장(1190년 경)
  - **델리를 장악(1192)**하고 북인도 지역 대부분 차지
- : 불교, 힌두교 사원 파괴



<인도의 이슬람화>

### 04. 델리 술탄 왕조 시대(1205 ~ 1526)

- **아이바크 왕조** ⇨ 할지 왕조 ⇨ 투글루크 왕조 ⇨ 사이이드 왕조 ⇨ **로디 왕조**
- 수도 **델리**, 벵골과 카슈미르 지방이 인도 영토로 편입
- **아이바크 왕조**

: 구르 왕조 무함마드 왕의 노예 출신인 아이바크(재위 1206 ~ 1210)가 건국

: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쿠티브 미나르(Qutb Minar)** 건립

- 지방 자치 허용, **지즈야(인두세)만 납부하면 다른 종교의 신앙 인정**

: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죄를 사면 → **이슬람교로 개종 증가**

-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 발달**

: 우르두어(힌두어를 기본으로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이 융합), 인도·이슬람 건축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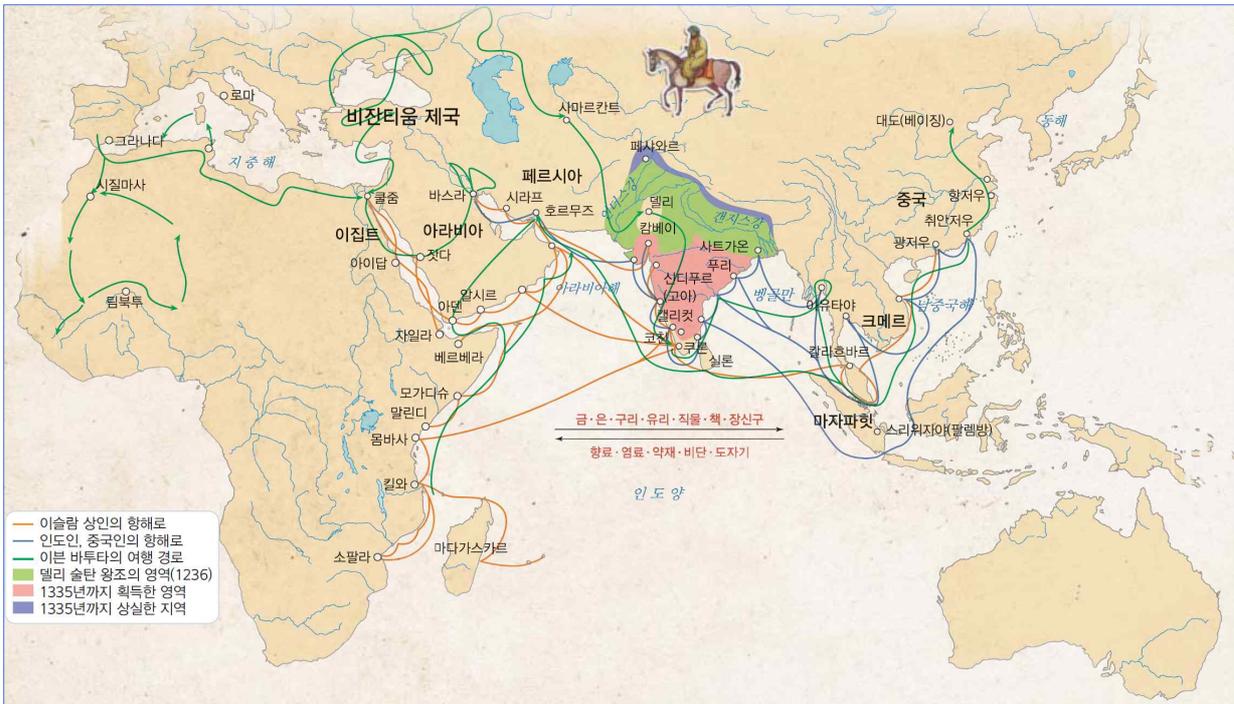


<쿠티브 미나르(승전탑)>



▣ 인도양 교역(『천재 지도서』)

8세기 이후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한 인도양 교역망은 각 지역의 특산물 생산과 교역을 자극했고 문화와 사상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이슬람 상인들이 가져온 유럽과 아프리카의 상품이 동남아시아의 힌두교 상인들이 가져온 중국산 물품들과 함께 거래되었으며, 인도양 해역의 주요 항구 도시는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과 물자, 정보의 집결지였다. 이러한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에서 벌인 활약상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아라비안나이트』에 실린 『신드바드의 모험』이다. 인도양을 항해하다가 갖은 고난을 겪은 끝에 사란디브(스리랑카)에서 보석과 상아를 찾아 대부호가 된 신드바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힌드바드(인도의 바람)라는 의미이다.



‘아랍의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모로코의 **이븐 바투타**(1304 ~ 1368)는 ‘이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나 간다.’라는 목표 아래 대서양에서 중국까지 30년(1325 ~ 1354)에 걸친 대장정에 나섰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 이집트와 시리아, 소아시아의 오스만 제국, 주치 울루스(킵차크한국),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 등을 돌아보며 이슬람 세계의 저력과 대규모 교역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가 남긴 『**여행기**』는 14세기 세계 각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자연환경, 사회 제도와 풍습들을 꼼꼼히 기록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 이슬람 전파에 따른 장례 문화의 변화(『천재 교과서』)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기 전 인도의 장례 방법은 화장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달리 이슬람에서는 ‘최후의 심판’이나 내세에 관한 믿음에 따라 매장이 중시되었다. 그 결과 **이슬람 진출과 함께 인도에서도 매장 문화가 나타났고, 특히 왕의 묘당 건축은 왕조의 권력을 백성들에게 널리 각인시키는 정치적인 행위로 크게 성행하였다.**

##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1526 ~ 1858)]

### 01. 성립

- **바부르**(재위 1526 ~ 1530)
  - : 티무르(부계) + 칭기즈 칸(모계), **술레이만 1세의 지원**
  - : 북인도 진출 ⇨ 델리 술탄 왕조 정복(**파니파트 전투**, 1525) ⇨ 건국(델리, **1526**)

종교적 선입견을 품지 마라. …… 다양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백성에게도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 해라.  
- 바부르가 죽기 전 아들 후마윤에게 남긴 유언(1530)

### 02. 발전

- **아크바르 황제**(③, 재위 1556 ~ 1605)
  - : 수라트 침공(1573), **데칸 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 : 행정 관료 조직(만삽다르)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 비무슬림 차별 정책(바부르 ~ 후마윤) 철폐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도모**
  - : 비(非)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즈야 폐지(1579)**

지금까지 나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여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신에 대한 귀의 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식을 쌓아감에 따라 나는 후회하는 마음에 사로잡혔다.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아블 파즐, 『아크바르나마』

- : 개종한 힌두교도들이 다시 힌두교로 개종할 수 있는 법령 공포
- : **힌두교도의 관료 등용**
- : 라지푸트족 등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
- :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량 향상
- :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 마련
- **샤자한**(⑤, 재위 1627 ~ 1658)
  - : **타지마할 묘당 축조**(아그라, 1631 ~ 1653)
  - **아우랑제브 황제**(⑥, 재위 1658 ~ 1707)
    - :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최대 영토 확보)**
    - : 잦은 전쟁으로 재정 악화
    - : **이슬람 우대 정책 추진**
    - : **지즈야 부활(1679)**, 힌두교 사원 파괴, 타 종교의 축제 금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 강제
    - : 북서부의 힌두 세력인 **라지푸트족의 반발**
    - : **비비 까 마크바라**(아우랑가바드, 가난한 타지마할) 건립



(무굴 제국의 발전)

### 03. 쇠퇴

- 종교적 갈등 심화
- **북부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고빈드 싱의 지도), 중부 인도 마라타 동맹의 반란(1720 ~ 1818)**
-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동서 해안 지방 침투로 약화 가속화

#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

[무굴 제국(1526 ~ 1858)의 경제와 문화]

## 01. 경제

- 국내
  - :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
  - : 시장과 도시 성장, 화폐 경제 활성화
- 대외 무역
  - : 중국,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지중해를 잇는 **인도양 무역 주도**
  - : **면직물, 견직물**, 향신료 등 수출 → **영국 산업 혁명의 계기**
  - :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서남부 해안에 무역 기지 건설 → 인도양 무역의 쇠퇴

## 02.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 1) 종교

- **시크교**
  - : 나나크(1469 ~ 1538) 창시, **펀자브 지방에서 발전**
  - : 유일신 신앙, 우상 숭배 금지
  - : 인간 평등,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반대
  - : **남성들의 성씨로 싱(Singh) 사용**
  - : 깎지 않는 머리카락과 수염, 나무 빗, 단검, 쇠 팔찌, 속바지
  - : **황금 사원**(신의 집, 암리차르, 1604)



〈황금 사원〉

### 2) 언어

- **페르시아어(공용어)**
- **우르두어(일상어)**



**아치형 입구**  
아치문은 이슬람의 모스크 양식이고, 연꽃무늬는 힌두 양식이다.

**돌** 이슬람 건축 양식이지만 꼭대기에 연꽃무늬 장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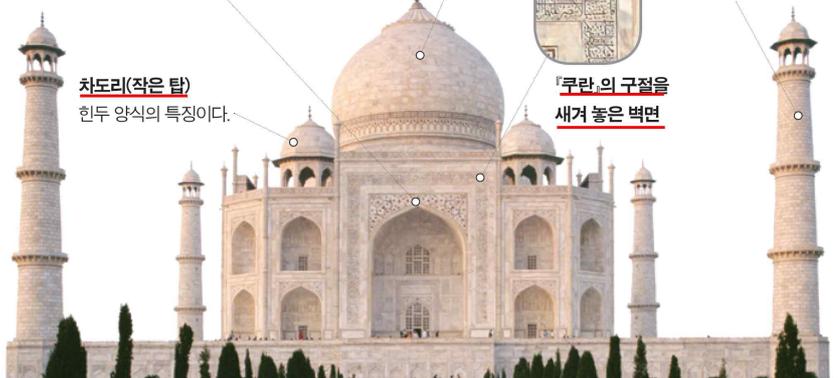
**미너렛** 모스크에 부속된 건축물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기능을 하지만, 여기서는 장식적 요소가 강하다.



**쿠란의 구절을 새겨 놓은 벽면**

### 3) 건축

- **타지마할 묘당(아그라)**
  - : 이슬람 양식
  - : 힌두 양식
  - : 인도·페르시아 양식
    - ↳ 투각(透刻), 격자(格子) 세공
- 레드 포트(델리, 1639 ~ 1648)



**차도리(작은 탑)**  
힌두 양식의 특징이다.

〈타지마할〉

### 4) 무굴 회화

- 페르시아 세밀화의 영향 아래 힌두 양식이 결합된 세밀화가 크게 유행

## 개념 Check

- 1205년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인 아이바크가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를 수립한 이후 300년 동안 다섯 왕조가 교체되며 북인도를 지배한 ( ) 시대가 전개되었다.
- ( )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양식이 결합된 아이바크 왕조의 거대한 승전탑(勝戰塔)이다.
- 무굴 제국의 ( ) 황제는 지즈야 폐지, 힌두교도의 관료 등용,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 등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 무굴 제국에서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한 ( ) 황제는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 샤자한이 왕비를 추모하며 세운 ( ) 묘당은 힌두·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 유형 CHECK!!

### 01

밑줄 친 ‘이 세력’ 대신 팀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2-수능]

황제는 정복 활동을 통해 데칸고원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제국의 영광을 드높였다. 그러나 그는 선대 황제가 폐지하였던 지즈야를 부활시키는 등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하였고, 이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특히,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에 반대하였던 이 세력은 고빈드 싱의 지도 아래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끈질기게 이어갔다.

- ① 탄지마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 ② 마흐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찾아본다.
- ③ 플라시 전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
- ④ 나나크의 사상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 ⑤ 에프탈의 침입이 가져온 결과를 알아본다.

### 02

(가) 국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2-9월 모의평가]

솔레이만 1세는 사파비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인물을 지원하였다. 이에 그 인물은 오스만 제국의 장교인 우스타드 알리 쿨리의 조언에 따라 이집트산 대포와 화승총으로 무장한 군대를 편성하고, 사파비 왕조와 맞닿은 접경지대에 강력한 군사 기지를 구축하였다. 이후 그는 델리를 거점으로 삼은 이브라힘 로디를 파니파트 전투에서 격퇴하고 (가)을(를) 건설하였다.

- ① 크테시폰의 사원에서 기도하는 신도
- ②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하는 병사
- ③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공격하는 장군
- ④ 데칸고원을 넘어 남인도 원정에 나서는 황제
- ⑤ 북인도를 침략한 에프탈에 맞서 싸우는 군인



# 인도의 민족 운동

## [★영국의 인도 침략]

### 01. 무굴 제국(1526 ~ 1858)의 쇠퇴

- 잦은 정복 전쟁, 재정 파탄,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 심화 등
- 엘리자베스 1세(1558 ~ 1603)의 동인도 회사 설립(1600)
-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

### 02. 플라시 전투(1757)

- 영국 ⇄ 프랑스 · 벵골 연합군
- 영국의 승리
  - : 벵골 통치권 장악
  - : 조세 징수권 획득(1765)
  - :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 확보
  - : 영국산 면직물을 대량으로 수출, 면화와 아편의 강제 재배
  -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대립 조장, 크리스티교로의 개종 강요
  - : 인도 통치법 제정(1773)

1600	동인도 회사 설립
1757	플라시 전투, 영국 승리
1857	세포이의 항쟁(~1859)
1858	무굴 제국 멸망
1877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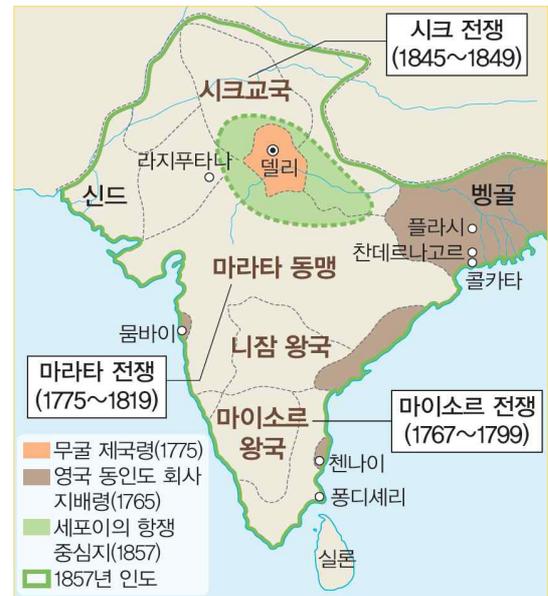
<영국의 인도 침략 과정>

### 03. 반영 전쟁의 전개와 실패

- 마이소르 전쟁(1767 ~ 1799)
- 마라타 전쟁(1775 ~ 1819)
- 시크 전쟁(1845 ~ 1849)

### 04. 세포이 항쟁(1857 ~ 1859)

- 영국의 침략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불만 증가
- 세포이의 종교적 반발
  - : 페르시아어로 병사, 동인도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
-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확대(락 슈미 바이의 저항)
  - : 델리를 점령하고 북인도까지 장악
- 내부 분열과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력 진압으로 실패
- 무굴 제국 황제(바하두르 샤 2세) 폐위
- 인도 통치 개선법 제정(1858)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인도인의 저항>

제1조 동인도 회사가 점유·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통치와, 통치와 관련하여 위 회사에 부여된 모든 권리는 더 이상 행사되거나 부여되지 않는다.  
 제2조 인도는 폐하에 의하여, 폐하의 이름으로 통치된다.  
 제3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폐하의 주요 국무장관 중 한 명이 동인도 회사가 수행하였던 모든 권력과 의무를 수행한다.

- 동인도 회사 해체(1876)
-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1877)
  - :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 ~ 1901)이 인도 제국 황제 겸임

## 인도의 민족 운동

### [★브라흐마 사마지(Brahma Samaj, 브라만인 모임) 운동]

#### 01. 결성(1828)

- 람 모한 로이(인도 근대화의 아버지, 1772 ~ 1833) 주도
-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 전개



〈람 모한 로이〉

#### 02. 활동

- 순수 힌두 교리로의 회귀, 우상 숭배 배격 등 종교 운동으로 출발
-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
- : 카스트 제도 반대, 사티(Sati, 과부의 화장) 등의 폐습 타파, 여성 권리 신장, 교육 확대 주장

###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

#### 01. 결성

- 영국이 인도인 회유를 위해 정치 조직 결성 지원
- 지식인, 관리, 민족 자본가, 지주 등의 주도로 조직(뭄바이, 1885)

#### 02. 활동

- ① 초기 영국에 협조하면서 점진적·합법적 개혁을 통해 인도인의 권익 확보에 주력
- ② 영국의 **벵골 분할령 발표(1905)**  
: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분열을 통해 인도 민족 운동의 약화 시도
- ③ **콜카타 대회(틸라크, 1906)**를 개최하여 **반영 운동 전개**



- 1905년 영국령 인도 총독 G. N. 커즌이 벵골주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한 사람의 장관이 다스리기에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동벵골과 서벵골로 나누어 통치하겠다고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는 지세 증액, 차 플랜테이션 실시, 그리고 당시 반영 기운이 높았던 벵골을 나누어 인도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데 실제 목적이 있었다.
- 벵골 인은 벵골 분할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국인의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 스와데시(국산품 애용)는 경제가 혼란한 인도에서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매년 2억 루피 정도의 봉급·연금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곳에 영국의 경제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 의장 나 오로지(1825 ~ 1917)의 연설(1906)

#### ④ 4대 강령 채택

: **스와라지(자치 획득)**, **스와데시(국산품 애용)**, 영국 상품 불매, 국민 교육 진흥

- ⑤ 영국이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의 결성을 지원(1906) → 민족 운동의 분열 시도
- ⑥ 전 이슬람교도 연맹이 인도 국민회의를 지원하여 반영 운동 전개
- ⑦ 벵골 분할령 취소(1911) →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인정

## 인도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과 인도]

### 01. 협상국에 참전

- 영국의 자치권 약속 → 영국에 협조

### 02. 제1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영국의 정책

- 인도 남성의 10%에게만 선거권 부여
- **틀렛법 제정(1919)**

영국의 식민지 정부가 인도 내의 치안 상황과 대책을 조사한 틀렛의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제정한 법률이다. 인도 총독이 인도인을 구속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은 투옥 등으로 인도의 민족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간디, 네루의 민족 운동 전개와 영국의 통치 방식 변화]

### 01. 간디(1869 ~ 1948)

- **틀렛법 폐지와 완전한 자치 요구**
- 사티아그라하(‘진리를 찾으려는 노력’) 조직과 비폭력 불복종 운동 전개  
: 공직 거부, 국산품 애용, 납세 거부 등 → 암리차르 학살 사건(1919. 4월)
- **소금 행진**(영국의 소금법 제정에 항의, **1930.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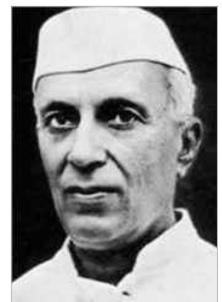


〈소금 행진 중인 간디〉

1930년 영국은 소금법을 제정하여 인도에서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고 영국산 소금에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였다. 그러자 간디는 직접 소금을 만들어 영국에 세금을 바치지 말자며 전통 염전이 있던 해안으로 향하였다. 간디와 일행은 약 320km를 행진하였는데, 행진 소식을 들은 인도인들이 합류하여 해안에 도착할 즈음에는 행렬이 약 2만 명에 이르렀다. 해안에 도착한 간디는 한 줌의 소금을 만든 후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금을 영국이 독점하는 것은 인도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행진에 가담한 인도인들을 체포하여 투옥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국은 투옥자 대부분을 풀어 주었고, 가정용 소금이라는 조건 아래 인도인의 소금 생산을 허용하였다.

### 02. 네루(1889 ~ 1964)

- 간디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
- **인도 독립 동맹 결성**[1928(『비상 교과서』), 1929(『미래엔 교과서』)]  
: 완전 독립을 요구하면서 파업과 무력 투쟁 전개



〈네루〉

### 03. 영국의 통치 방식 변화

- **신인도 통치법(1935)**  
: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인도인의 자치 인정
- 인도와 동·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1947**)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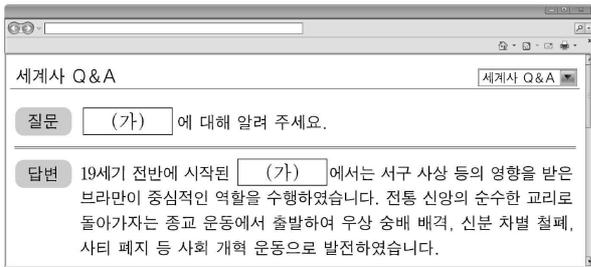
- ① 람 모한 로이 등의 주도로 시작된 ( ) 운동은 힌두교의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자는 종교 운동으로 출발하여 점차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② 영국은 세포이의 항쟁을 계기로 무굴 제국 황제를 폐위시키고 1858년 ( )을 제정하였다.
- ③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의 ( )에 대하여 콜카타 대회를 열고 반영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인도의 간디는 구속 영장 없는 체포, 재판을 거치지 않은 투옥을 규정한 ( )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⑤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한 ( )는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 ① 람 모한 로이가 주도하였다.
- ②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로 이어졌다.
- ③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전개되었다.
- ④ 마라타 동맹이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청년 튀르크당이 조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02**

(가) 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그림은 (가)의 마지막 황제인 바하두르 샤 2세가 연행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그는 시와 서예 등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제국의 통치자로서는 불운하고 무력하였다. 영국의 압박 속에 별궁에 머물던 그는 동인도 회사의 용병이 일으킨 봉기에서 명목상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다 권좌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 ① 롤릿법이 제정되었다.
- ② 플라시 전투가 발생하였다.
- ③ 인도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 ④ 에프탈이 북인도를 침략하였다.
- ⑤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였다.

03

밑줄 친 ‘법’ 이 제정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2020-9월 모의평가]

인도 총독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롤렛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비밀 회합을 한 후, 혁명 활동 혐의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단순 혐의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였고 특별 법원은 피고를 배심원 없이 재판할 수 있었다.

(가)	(나)	(다)	(라)	(마)
플라시 전투 발발	세포이 항쟁 발발	인도 국민회의 결성	벵골 분할령 발표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5

(가), (나) 시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2019-6월 모의평가]

(가) 영국은 인도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립을 공식 선포하였다.  
 (나) 인도국민회의는 콜카타 대회에서 영국 상품 불매, 스와라지(자치), 스와데시(국산품 애용), 국민 교육 진흥의 4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 ① 롤렛법이 제정되었다.  
 ②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  
 ③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었다.  
 ④ 마라타 전쟁이 종결되었다.  
 ⑤ 간디의 소금 행진이 전개되었다.

04

(가)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9-9월 모의평가]

<p>역사 인물 사진</p> <p>(가) 항쟁의 영웅</p> <p>락(라크)슈미바이</p> 	<p>생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토후국 잔시의 왕비</li> <li>○ 탄약포(통)에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발려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어난 (가) 항쟁에 참여</li> <li>○ 저항군의 지도자로 전투에 참가할 때마다 남자처럼 꾸민.</li> <li>○ 팔리오르에서 영국군과 전투 중 사망</li> </ul>
---	---

<보기>

- ㄱ. 플라시 전투로 이어졌다.  
 ㄴ. 동인도 회사의 해체를 야기하였다.  
 ㄷ. 마라타 동맹과 시크교도가 주도하였다.  
 ㄹ.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시대	시대 특징	
	정치 · 경제	사회 · 문화
고대 문명	① 인더스 강 유역 : 드라비다 족, <u>하라파·모헨조다로</u> : 아리아인의 문명 파괴	• 상형문자 사용, <u>계획 도시(도로·공중목욕탕)</u> • 신전, 하라파 인장·일각수 인장 •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
	② 갠지스 강 유역으로 아리아인 남하 : 철기, <u>브라마교(다신교)</u> , 『 <u>베다</u> 』, <u>카스트 제도</u>	•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성장(BC. 7C) : 우파니샤드 철학, <u>자이나교·불교 등장</u>
<u>마우리아 왕조</u>	• <u>알렉산드로스의 침입</u> (BC. 326) • <u>최초 통일 왕조</u> ,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 <u>아소카왕</u> (재위 BC. 270 ~ BC. 230) : 전성기, 칼링가 정복, 산치 대탑 건립	• <u>스투파 제작</u> , 무(無)불상 시대 • <u>아소카 왕의 석주</u> (돌기둥) • <u>상좌부 불교</u> (소승 불교·남방 불교) 발달 • 동남아시아에 불교 전파
쿠산 왕조	• <u>카니슈카 왕</u> (재위 128 ~ 151) •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침략	• 대중부 불교( <u>대승 불교</u> ·북방 불교) • 불경 결집, <u>간다라 양식(헬레니즘의 영향)</u>
굽타 왕조	• 찬드라굽타 1세의 건국(320) • <u>찬드라굽타 2세</u> (재위 380 ~ 415) : 북인도 통일,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동서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 • <u>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u>	• <u>고전 문화의 황금기</u> : <u>힌두교 창시</u> 와 왕조의 지원, 『마누 법전』 : <u>산스크리트 문학</u> (『사쿤탈라』, 『메가두타』) : 굽타 양식(아잔타 석굴, <u>인도 고유 불상</u> ) • <u>영(0)의 개념, 10진법 사용</u> , 원주율, 지동설
이슬람교 확산	• 이슬람 세력의 북인도 진출(8C) • 가즈니·구르 왕조(10 ~ 13C) • <u>델리 술탄 5왕조(1205 ~ 1526)</u>	• <u>쿠트브 미나르</u> (아이바크 왕조, 승전탑, 텔리) • 힌두교에 대해 관용적 태도 → 이슬람교 개종 •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무굴 제국	• 바부르(티무르 후손)의 건국( <u>1526</u> ) • <u>아크바르 대제</u> ( <u>3</u> ), 재위 1556 ~ 1605) : 지즈야 폐지,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 • <u>औरंगजेब</u> ( <u>6</u> ), 재위 1627 ~ 1658) : 최대 영토, 지즈야 부활, 이슬람 우대 정책 • <u>마라타 동맹(1720 ~ 1818)</u> , 시크교도의 반란	• 인도양 무역 발달 : <u>면직물</u> , 견직물, 향신료 등 수출 • <u>인도·이슬람 문화의 융합</u> : 시크교, 황금 사원(암리차르) : <u>타지마할 묘당(아그라)</u> : <u>우르두어(일상어)</u> ·페르시아어(공용어)
민족 운동	• 영국의 인도 지배와 반영 민족 운동 ① 동인도회사 설립( <u>1600</u> ) ② 플라시 전투( <u>1757</u> ) : 영국 ⇄ 프랑스, 벵골 지방 독점권 확보, <u>인도통치법 제정(1773)</u> ③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u>1828</u> ) : 람 모한 로이 주도, 힌두 교리로의 복귀 주장, 사회 개혁 운동 ④ 세포이 항쟁( <u>1857 ~ 1859</u> ) : 무굴 제국 붕괴, <u>인도 통치 개선법(1858)</u> , 영국령 인도 제국( <u>1877</u> ) ⑤ <u>인도국민회의(1885)</u> , <u>벵골분할령(1905 ~ 1911)</u> , <u>콜카타 대회(스와라지·스와데시, 1906)</u>	
	•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중 자치권을 조건으로 영국에 협력했으나 영국의 약속 불이행 ① <u>롤렛법 제정(1919)</u> ⇄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 암리차르 사건 발생(1919. 4월) ② 사이먼 위원회 파견(신인도 통치법 제정을 위해 파견된 위원회, Simon Commission, 1927) ③ <u>인도 독립 동맹 결성</u> (네루, <u>1928·1929</u> ) → 완전 독립을 요구하며 무력으로 저항 ④ 영국의 소금법 제정 ⇄ 간디의 소금 대행진( <u>1930</u> ) ⑤ 신인도 통치법( <u>1935</u> ) 제정 →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인도인의 자치 허용	
	• 인도의 독립과 분열 ① 독립( <u>1947. 8. 15</u> ) 이후 민족적·종교적 대립 격화 ②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 연방으로,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리 ③ 파키스탄의 동·서 분리 →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1971) ④ 영국 자치령으로 독립한 실론은 국호를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변경(1972)	